

Dr. Nigel M. de S. Cameron

트리니티 국제대학 부총장

# 신앙과 학문의 연계성: 기독교 대학에 대한 도전

이 글은 금년 4월 한국기독교대학협의회가 주최한 '신앙과 학문의 일치'를 위한 국제 세미나에서 저자가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동 협의회의 허락을 얻고 본 편집부가 번역상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게재한 것이다.

20세기 말 기독교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21세기 혹은 2000년대를 고대하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는 질문들에 봉착합니다. 이 세기들은 누구의 것인가? 2000년대는 누구의 것인가? 이 숫자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질문은 곧 해답이기도 하며 그것이 거의 모든 토의에서 이 질문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니엘 롱스의 여러 권으로 된 교회사 책의 제목에 의하면 이들은 바로 기독교의 세기이며 기독교의 천년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한해 한해 세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그와는 다르게 계산하는 나라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역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한 문명이 다른 문명에 대해 지배권을 획득해 나가는 사실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서양의 달력에 따라 오는 각각의 새해는 나사렛 예수의 탄생을 새롭게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계산의 착오에 의해 몇년간 틀려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기려 그 때를 기점으로 하는 국제적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이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한 일은 보통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언급이 우리의 논의를 적절한 맥락 위에 놓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맥락이란 우리가 기독교 고등교육이라 부르는 것이 호기심이나 소수의 취향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문화의 주류적인 교육전통으로서 이 문화적으로 복잡한 기독교 후기 세대에 살아남아 내려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관습으로서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유대-기독교적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놀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주석을 필요로 합니다. 서양의 전통에서 있는 우리는 또한 그리스-로마의 이교적 문화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 문화는 그 모든 지식 분야에서 기독교에 의해 접수되어 모든 고전적 이교도적 탐구는 기독교적 맥락에서 답습되었는데, 종종 이집트의 유산으로 불리우는 교육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내 자신의 전문분야보다 더 분명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교도 시절부터 서양의 의술 가치관의 근거는 히포크라테스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교도적 선서에서 비롯된 전통에 지배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죽어가는 이교도 정신을 윤리적 유일신관의 맥락에 접합시켜 십자가와 성육신 안에서 결실되게 한 것입니다. 연상되는 것으로서, 천 년전의 최초의 중세대학 이후로 서양의 교육 역사는 복잡했고 정돈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고등교육이라고 인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볼로냐와 파리, 이어서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의 중세 대학들에 관해 사실이었고, 신대륙의 초기 대학들에서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문학부과정과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 통합되어서 트리니티 국제 대학교로 설립된 직후, 우리는 교수진의 심포지움을 가졌고 두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대학의 주제에 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인 Carl F. H. Henry 박사는 복음주의적 신학의 석학으로서 1960년대에 대규모 복음적 대학을 설립하는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많은 주요한 기독교 대학을 하나로 묶는 고등 기독교 학문을 위한 연구소(IACS)를 설립했는데, 이는 신앙과 역사 학회(the Conference on Faith and History)나 미국 과학자 협회(the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와 같은 학문적 기관들을 위한 협력기관으로서 기독교학자회를 위한 협의회(a Council for Christian Scholarly Societies)가 탄생하는 데에 선구적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1960년 초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초대 총장이며 트리니티 신학교가 대학교의 신학부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비전을 가진 Kenneth S. Kantzer 박사입니다. Henry와 Kantzer는 기독교 대학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또 예일, 하바드, 프린스턴 대학이 설립될 때 본디 기독교 대학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지금은 복음주의 학교들에 비교될 수 없는 거대한 기부금으로 움직이만 처음에는 트리니티나 다른 기독교대학에 비교해 별 것 없는 자원을 가졌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학들을 특징지었던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식이 통합된다고 믿는 그들의 핵심적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들 대학이 단순히 종교적 기관이 아니라 이들의 종교적 헌신이 학문적 비전의 주요 동기였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함께 유지되고 있다고 믿는 창조 교리가 그들의 학문적 정초였습니다(골로새서1). 그러한 비전은 각 방면의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된다고 하는 학문적인 훈련에 대한 근본적인 통일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존 헨리 뉴만(John Henry Newman)의 중요한 책에서 주장된 것을 따라 신학을 인간적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중심에 좌정시켰습니다. 그 책은 19세기의 카톨릭 신학자에 의해 저술되었으나, 당시의 교육에

있어서의 인문학적 기초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또 “The Idea of University”에서 포괄적이고자 하는 어떠한 인간들의 지적작업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변증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서양의 대학이 세속화한 것을 본 사람에게는 이제는 광장에서 거의 사라진 것에 대한 비극적 경고로 들릴 것입니다. 몇몇 서양의 주요대학들에 신학프로그램이 개설되거나 신학교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자기 대학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도 않으며 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계시적인 신학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종교는 단순히 인간현상의 일환으로서의 자리를 인정받고 있고 이것은 놀랄 일이 못됩니다.

서구의 대학이 타락해 간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말해지고 있고, 그것은 물론 문화현상의 축도입니다. 짧지만 예리한 책인 “A Christian Critique of the University”에서 레바논의 외교관이자 기독교인 학자인 찰스 하비브 말릭은 이러한 학교들이 우리의 문화에서 수행하도록 요구받아 온, 그리고 점점 증가해 온 역할에 비추어 문제의 상태를 요약하고 그 중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서구의 이 위대한 기관, 즉 대학은 어떠한 기관보다도 오늘날의 세계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교회보다도, 정부보다도, 그 어떠한 기관보다도 그러하다. 모든 정부의 지도자는 대학 졸업자이거나 혹은 적어도 그 선생이나 경영자가 대학 졸업자인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모든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들, 즉 의사, 기술자, 변호사 등은 모두 다 고등학교, 초급대학, 대학의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다.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들 중 일부는 커뮤니케이션과 신문방송학에 대한 보다 높은 전문과정을 거치고 있다.

가정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 보편적인 교육의 시대에서 대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모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고등

학교나, 전문대학, 혹은 대학의 졸업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대학의 영향력은 파급적이며 전반적이기 때문에 대학을 괴롭히는 어떠한 문제도 서구문명 전체에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오늘날 대학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검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는 없다.

그리고 말릭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만약 대학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만약 교회와 성서가 세계를 지배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긴급한 물음을 외면할 수 있는가?” (pp.19-21)

세속화의 과정은 저명한 복음주의 역사가 조지 말스텐에 의해 자세히 기술되었습니다. 여느 사회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변화속도가 느리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주요한 대학들이 기독교 신앙에 입으로라도 동조해야 하던 위치에서 벗어나서 보다 공공연히 적대적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의 심각성은 실제적 문제에서 더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대학의 고참 기독교인 교수 사이에 들리는 말로는 포부가 있는 학자들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교수직을 못 얻거나 종신직을 못 얻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기독교 후기의 학교에서 아직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더 적은 후계자, 어쩌면 거의 없다시피한 수의 후계자만이 남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의 다원주의란 다원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을 관용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모던의 식탁은 기독교인들에 모든 사람과 함께 앉을 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을 배제하는 경향을 띄는데, 이는 우리가 학문을 지배하고 있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신기한 일입니다. 다원주의의 선전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바로 다원주의의 실제적인 위대한

장점으로서 표방합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한 테이블에 앉도록 허락하는 학교에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다 기독교가 절대주의적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그들은 기독교가 서구 학문에서 자리를 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인 한가지 특수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 특수성은 기독교가 서구의 과거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문적 다원주의는 그것이 대체한 기독교적 지성구조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 요소들로써 정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대학의 거대한 영향력에 대한 말리의 논평을 상기해 볼 때 위와 같은 질문의 중요성은 대단히 큼니다. 대학은 실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가 배제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추이는 기독교 고등교육이 도전받을 것을 예고합니다. 대학의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가고, 주요대학에 대한 기독교인의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며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적대상태 까지), 교회는 탈기독교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바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적이고 문화적인 리더십을 찾고 있는 현실 등, 기독교 고등교육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21세기의 전망을 두고 기독교 학교의 지도력에 대한 몇 가지 시각과 제안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이제 주류적인 교육기관들이 계속적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독교 문명의 황혼기에 그러한 학교의 자락에서 기독교 지성의 삶을 지속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문화적 지성 센터(counter-cultural intellectual centers)라고 내가 명명하는 것에 기초를 둔 기독교 반문화(a Christian counter-culture)의 계발과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문화에 참여하고 침투하는 군대로서 유지하는 일은 당연히 그만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부과되는 새로운 짐이 아니며, 원래 교회 사명의 핵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장기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기관으로서의 우리 학교들의 과제를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많은 부모와 학생들에게 일반대학에 대한 실제적 대안으로서, 또는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로서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장엄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없는 한 우리는 세속적 사고방식 -- 급격히 교회의 기반을 훼손시키면서, 복음이 그들의 문화의 껍데기 이상을 침투하거나 변형시키지 못하게 막는 -- 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2. 찰스 말릭이 지난 30년 동안 IFACS(기독교 고등교육기관)가 추구해왔던 계획과 유사한 종류의 온건하고 실제적인 제안으로 그의 책을 마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현재 우리의 재원으로서는 주요 연구대학들을 되찾거나 그들과 같은 거대한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릭은 주요한 학교의 안과 밖에 있는 기독교 학자들의 상호연결과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서양에서 문화의 중심적 위치를 잃고, 타락하고 거의 탈기독교적이 된 서구문화가 전세계로 수출되어 모든 나라가 그들의 기업과 기술의 혜택과 함께 가치의 상실을 겪는 이 시기에, 우리는 기독교 '대학'을 개발하기 위한 활기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기술과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의 수단을 동원하여, 일반 교육기관들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즉, 기독교인) 학자의 망을 유지하고 이 이방의 환경에서 가르치고 연구할 기독교인 학자들을 준비시키고 계발하는 데 우리의 가진 바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동시에 위의 것들이 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사실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상호연결점이 확립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학교와 그 밖의 기독교적 고등교육 기관이 상호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우리가 가진바 주력적인 복음주의적 대학원이며, 많은 유능한 기독교 사상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신학 외의 기본적인 학문방법론에 관련하여, 특히 지난 세대의 철학적 전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던 영역들에 대해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습

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일반연구대학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인 교수들과 기독교 학교의 교수들을 보다 잘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두 그룹의 연결은 놀라운 정도로 약합니다. 기독교학교는 일반 학문기관의 기독교인들을 지원해야 하며, 반대로 그들은 기독교대학의 학문적인 인식과 수준을 높이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식이 통합된다는 우리의 신념을 위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학문 분야가 포스트모던 전제의 파괴적 영향 하에 폭발하는 양상을 띤 지식세계에서 조각조각 분화되어 나갈 때, 우리는 진리는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대 학문의 분열적 성향에 대항하고 응집력과 구조를 찾으려 노력하면서 학문의 다학제간 연대성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이나 직업적인 연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분열의 압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함께 유지된다는 커다란 그림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4 이런 맥락에서, 일반 학문기관이 우리들의 계획에 점점 더 비동조적이 되어가는 이 때, 뚜렷한 기독교 교육기관을 만들어내려는 우리는 엄청난 역경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여러가지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많은 미국의 학교들은 신입 교수들에게 아주 상세한 종교적인 시험을 받게 하고 있으며 그들과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교수들을 해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자신들을 선명한 기독교 대학으로 간주하면서 다양한 종교적인 견해를 가진 교수들을 여전히 채용하고 있는 수백의 미국 학교들도 있습니다. 어드만 사가 1997년에 출판한 리처드 휴그와 윌리엄 아드리안의 기독교 고등교육의 모델들은 (Richard T. Hughes and William B. Adrian, Eerdmans, 1997)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회한하게도 21세기에서의 성공을 위한 전략들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진지한 비판 없이 다양한 모델들을 소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



에 소개된 대부분의 전략들이 21세기의 첫 10년간에 그들의 학교들로 하여금 이미 일부는 빠져 버린 합정인 명목 뿐인 종교로 빠져들지 않게 하리라고 믿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과 같은 대학들은 기독교 대학으로부터 현재와 같은 세속학교로 꾸준히 변천해 온 것입니다.

만일 하나의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답은 분명히 우리 교수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원칙인 *Semper Reformanda*, 즉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수들이 비록 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교수진은 더 나아가서 자각적이고 의도적인 반문화적 공동체가 - 복음과 기독교정신의 세계관의 시각에서 문화비판과 문화참여를 행하는 데 초점을 두는 -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수를 새로 채용하거나 재임용할 때 신앙에 대해 분명한 조건을 둘 수 없다면, 기독교적 사고를 위한 활발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 그들의 모든 가르침이 기독교적 사고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동일한 방침이 학부와 대학원의 모든 교육과정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고등교육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재평가되어야만 합니다. 일례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성서 지식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이 고등 교육의 추구에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독교사상의 역사에 뿌리를 둔 문화분석과 비평의 도구가 성경지식의 역동적 의미를 삶으로 나타내는 데에 꼭 필요할 때, 그리고 그 도구가 삶과 문명의 진행과정을 결정하는 데 일조할 지적이면서 실제적인 차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할 때에는 물론 성경 지식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에 있어서 기독교 고등교육의 과제는 막중합니다. 세계를 오랫동안 지배하던 문화가 그 정신적 지주였던 유대-기독교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그것의 지적이고 문화적인 중심체인 대학이 기독교적인 토대를

부정할 때, 기독교 대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가 창조했으며 지금도 유지하시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아래 모든 인간 지식의 토대로서 유일한 초점으로 삼는 반문화적인 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스스로를 탈기독교적인 요소들로써 정의하는 문화는 기독교인들과 이미 거부 당한 그들의 사고방식들에 설 자리를 거의 남겨놓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문화에 도전하려 한다면, 그리고 기독교인 학생들이 세대를 거듭하여 계속 증언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면, 우리는 우리의 학교들을 예수께서 학생들의 주님이 되고 학생들의 문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하여 도전받는 철저한 기관이 되도록 세워 가야 합니다. ☞